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 연구*

-1950년대를 중심으로-

소 명 선**

(e-mail : smskk0604@jeju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서클지 『진달래』와 그 주변 잡지 |
| 2. 재일조선인 대중단체와 잡지 발행 양상 | 5. 재일조선문학회 관련 잡지 |
| 3. 『민주조선』의 계승지 | 6. 나오며 |

キーワード：1950年代(1950s), 在日朝鮮人(Zainichi Koreans), 에스닉雜誌(ethnic magazine), 戦後文化運動(post-war cultural movement), 相互交渉(mutual negotiations)

1. 들어가며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1940년대의 『민주조선(民主朝鮮)』, 1950년대의 『진달래(チンダレ)』, 1960년대의 『한양』, 1970년대의 계간 잡지 『삼천리(三千里)』, 1980년대의 계간 잡지 『민도(民濤)』와 『청구(靑丘)』, 1990년대의 『호르몬문화(ホルモン文化)』와 같은 식으로 대부분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여성들의 삶과 그녀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최초의 여성문학동인지 『봉선화(鳳仙花)』와 역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여성종합문예지 『땅에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를 대상으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역시 특정 잡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와 같이 일부 잡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료면에서의 제약, 즉 재일조선인이 관여한 잡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제주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잡지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곧 재일조선인에 관여한 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의 필요성과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인 형태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교적 입수가 용이했던 1970년대 이후의 잡지에 비해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경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1946년 4월에 창간하여 1950년 7월까지 총 33권을 발행한 『민주조선』의 경우 1993년 메세키서점(明石書店)에서 복각본과 함께 해제집이 출판됨으로써 잡지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상당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잡지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1950년대의 문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시중을 중심으로 한 서클시지 『진달래』가 새롭게 조명되었고, 2008년 11월에 후지출판(不二出版)에서 복각판이 간행되고 난 이후에서야 『진달래』 연구 또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조선』과 『진달래』 연구를 통해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 연구의 외연적 폭은 분명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문화활동에 관해서는 여전히 『진달래』라는 특정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는 1950년대의 잡지 발행의 전체상과 재일조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1950년대는 본국에서 발생한 민족분단의 전쟁과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도 이념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기이고, GHQ(연합국군 최고사령부)의 점령정책 전환으로 인해 민족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물론 생활권을 박탈당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일조선인의 대중문화운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후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영역이 탄생할 수 있는 자양분을 형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에스닉 잡지 연구에서 특정 잡지에 편향되어 왔던 연구 행태에 대해 그동안 연구의 중심에서 배제되어온 잡지들까지도 시야에 넣어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미디어활동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50년대에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잡지 현황뿐 아니라 이들 잡지 간의 교섭 양상, 나아가 전후일본사회의 문화운동과의 상호교섭 양태를 관찰하여 재일조선인의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족분단의 전쟁을 식민지중주국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에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펼쳐갔는지, 그리고 이들 활동의 의미와 재일조선인의 에스닉 잡지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전후 일본사회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일조선인 대중단체와 잡지 발행 양상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에스닉 잡지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직후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을 주도한 대중단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자 2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강제연행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본국으로의 귀환을 서둘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이미 관동대지진과 같은 혼란기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결성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1945년 9월에는 지역별로 속속 생겨난 각 단체의 대표가 도쿄(東京)에 결집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 결성을 협의하고, 10월에는 조련의 중앙조직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조련 결성을 즈음하여 GHQ의 <인권 지령>¹⁾으로 비합법 시절부터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김천해가 일본인 좌익 활동가들과 함께 석방되어 곧 조련의 최고 고문으로 취임한다. 김천해는 전후에 재건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이자 공산당 중앙기관에 설치된 조선인부 부장을 맡은 인물로, 그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원의 조련 내부에서의 활동은 이후 조련의 성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1946년 10월에는 조련과는 달리 우파적 성향의 재일본조선거류민단(대한민국 건국 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 이하, 민단)이 결성된다. 그러나 민단은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비롯하여,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이 각각 이념을 달리하는 독립 정부를

1) <자유지령(自由の指令)>으로도 불리는 <인권지령(人權指令)>은 1945년 10월 4일, 반체제적인 사상과 언동을 단속해 온 일본정부에 대해 GHQ가 자유를 억압하는 체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특고경찰과 치안유지법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구속된 공산당원 등의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지령.

수립하자 공화국 지지를 표방하는 조련과의 대립의 골은 깊어진다.

조련본부에 설치된 문화부에서는 문화, 교육, 계몽에 관한 출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각종 단체의 기관지뿐 아니라 문예지와 종합잡지의 발행도 활발했다. 해방 석 달 만인 11월에 창간한 『고려문예』, 첫 시 전문지로 1946년 1월에 창간한 『조선시(朝鮮詩)』, 조련의 기관지로서 1946년 4월에 창간한 『조련 문화(朝聯文化)』와 『민주조선』, 1947년 10월에는 『조선문예(朝鮮文芸)』 등이 조련의 주도하에 발행되었다. 조련은 1949년 9월 8일, GHQ의 <단체 등 규정령>에 의해 1947년 2월에 결성된 신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과 함께 폭력주의적 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되기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조련 해산 후 재일조선인들을 결집시킬 후속단체로 재일본조선민주통일전선(이하, 민전)이 결성(1951.01.19.)된다. 조련이 결성 초기부터 조선인 일본공산당원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민전 또한 일본공산당의 지도방침 하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전개되던 시기, 민전은 반미, 반이승만, 반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반군비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공산당과 공투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족 권리를 지키고자 했다. 일본공산당 4전협(1951.02)에서 채택된 ‘군사방침’에 따라 극좌적인 실력투쟁을 전개한 민전은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에 돌입하고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하자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극좌노선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재일조선인운동의 ‘노선전환’, 즉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의 결성을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55년 5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결성대회를 가진 총련은 재일조선인을 공화국의 공민으로 위치짓고 일본공산당과도 결별하게 된다.

민전 시대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문화인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시기이다. 반전과 세계평화 추구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미국을 타파해야 할 공동의 적으로 보고 각종 문화활동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사회 내부에서 생활기록운동과 서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전후 문화운동의 최전성기였다. 재일조선인에 의한 서클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오사카(大阪)조선시인집단은 민전과 일본공산당의 민족대책부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그 중심에는 시인 김시중이 있었다.²⁾ 이들의 서클시지 『진달

2) 김시중은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平凡社, 2001.11)에서 『진달래』는 공산당의 지령으로 “한국전쟁기에 재일의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지”, “소비에트가 내건 사회주의, 사실

래』 발행을 시작으로 재일조선인의 서클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와 같이 해방 후 결성된 단체들은 조련 시대, 민전 시대, 총련 시대를 거치면서 각각 그 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10여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온 단체가 있다. 그것은 바로 1948년 1월 17일에 결성된 재일조선문학회이다. 재일조선문학회는 1947년 2월에 김달수, 김원기, 장두식, 이은직, 박원준, 허남기, 강현철, 윤자원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재일본조선문학자회가 조국의 문학가동맹과 나란히 조국의 민주혁명에 공헌하기 위해 조련 산하에서 예술관련 활동을 해오던 단체들을 규합하여 재일조선문학회로 개칭하면서 발족했다.³⁾ 1953년 12월에는 재일본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하, 문단련)이 시인 허남기를 위원장으로 한 재일본조선인문화단체협회(이하, 문단협)로 개편되고, 이 문단협이 총련의 문화선전부에 직결된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재일조선문학회도 그 산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1959년 6월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이 결성되자 재일조선문학회는 또다시 문예동 문학부로 개편된다.

재일조선문학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한글 잡지 발행에 주력해 왔다는 점이다. 조련 시대에는 『봉화』를, 민전 시대에는 『군중(群衆)』, 『조선문학』과 같은 한글 잡지를 발행했다. 총련 산하의 문예동에 흡수된 이후, 문예동의 기관지, 즉 1959년 12월에 창간한 『조선문예』, 1960년대의 『문학예술(文学芸術)』, 『문예활동(文芸活動)』, 『조선문예(朝鮮文芸)』, 『효고문예통신(兵庫文芸通信)』, 『군중문예』는 모두 한글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재일조선문학회는 대중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조련에서 민전으로, 다시 총련으로 변모했지만 조직 결성 초기부터 한글로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50년대에 발행된 잡지의 집필진을 살펴보면 동시대의 다른 잡지들의 집필진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집필진의 대부분이 당시의 주류세력이었던 조련, 민전, 총련과 같은 대중단체 혹은 그 산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잡지

주의를 표방하여 공화국의 존재를 더욱 친숙한 것으로 하는 의식 개혁을 일으킬 장”(pp.133-134)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3) ‘재일조선문학회’의 강령은 “1. 일본제국주의 잔재 소탕, 2. 봉건주의 잔재 청산, 3. 국수주의 배격, 4. 민주주의 민족문학 건설, 5. 조선문학과 국제문화과의 제휴, 6. 문학의 대중화”로 6번째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이 본국의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과 일치하는 것이다. 宋惠媛(2014)『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p.129

발행에 있어서도 조련, 민전, 총련의 직간접적인 협조와 후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련, 민전, 총련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단체에 의한 잡지도 존재한다. 1947년 7월에 창간하여 1950년까지 발행을 이어간 『자유조선(自由朝鮮)』, 1953년 11월에 창간하여 1977년 11월에 286호로 중단한 『친화(親和)』가 그러한 예이다. 1957년 10월에 창간하여 1964년 12월, 27호로 중단한 백엽동인회의 동인지 『백엽(白葉)』은 편집 겸 발행을 맡은 최선이 비총련계 문화인들의 표현활동의 무대로 발행한 종합문화지이다. 또한 일제치하인 1912년 조국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도쿄의 유학생들이 모여 발행한 잡지명을 계승하여 1957년 11월에 창간한 『학지광(學之光)』은 남과 북이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1960년대 전반까지는 문예동을 중심으로 총련계의 잡지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비총련계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이며, 1967년 공화국이 유일사상 체제로 돌입하고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총련을 탈퇴하는 문화인들이 증가하게 되는 196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1950년대에 창간된 잡지 중 발행정보가 확인된 잡지들만을 대상으로 창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⁴⁾

【표1】 1950년대 재일조선인 에스닉 미디어

잡지명	출판사	창간	비고
보리(麥)	발행소 정보 없음	1951.03.26	허남기(許南麒)의 개인지. 창간호에는 「うたと闘いの時代に—1950年の朝鮮詩の報告」라는 제목의 장편시 1편이 게재
조선학보(朝鮮學報)	朝鮮学会	1951.05	4집부터 天理大学出版部에서 출판
군중	군중편집부	1951.11(추정)	한글 종합잡지. 조선문학회의 기관지
조선평론(朝鮮評論)	大阪朝鮮人文化協會	1951.12	9호(1954.08)로 종간. 오사카조선인문화협회의 기관지
새싹	在日本朝鮮人教育者同盟本部	1952.03	한글 어린이 대상 잡지
평화와 교육(平和と教育)	平和と教育社	1952.08	재일본조선인학교P.T.A 전국연합회 기관지. 창간호의 발행은 在日朝鮮人学校全国

4) 이외에 서클문화운동과 관련된 잡지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잡지의 보존 여부 등 자료면에서의 제약이 있어 본고에서는 【표2】에서 별도로 정리했다.

진달래 (ヂンダレ)	大阪朝鮮詩人集團진달래編集所	1953.02	連合會, 2호부터 平和と教育社로 바뀜 20호(1958.10)로 종간. 大阪조선시인집단 기관지. 후계지는 『カリオン』
문화공작	朝鮮學生同盟關東本部文化工作隊	1953.03. 20	조선학생동맹 관동본부 문화공작대(학동 문공대)의 기관지. 문화공작대(문공대)는 1952년 10월에 결성된 단체로, 민족 노래, 춤, 연극 등을 공연. 한글 잡지
문학보 (文學報)	在日朝鮮文學藝術家總會	1953.03 (추정)	1952년 12월에 결성된 재일조선문학예술 가총회(문예총)의 기관지
조선영화 (朝鮮映画)	在日朝鮮映畫人集團	1953.12	재일조선영화인집단의 기관지. 창간호는 1952년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향토를 지 키는 사람들》을 특집
조선미술	在日朝鮮美術會中央	1953.12 (추정)	재일조선미술회 중앙 기관지. 1954년 2월 15일에 발행된 2호의 편집후기를 보면 매 월 15일 발행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2호는 1월과 2월 합병호로 발간. 한글 잡지
어린이의 별	재일조선민주소년단 애지현분단	1954.02 (추정)	재일조선민주소년단 아이치현(愛知縣)분단 의 기관지. 7호(1954.05.04.)를 보면 월 2회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창간은 1954년 2 월경으로 추정 가능. 한글 잡지
진달래통신 (ヂンダレ通信)	大阪朝鮮詩人集團「 ヂンダレ」編集部	1954.03. 26	『ヂンダレ』에 대한 독자평과 합평회 기사 등을 게재한 소식지
조선문학	해방신문사	1954.03	한글 잡지. 재일조선문학회 기관지. 편집 인은 남시우(南時雨)
시정원 (詩庭園)	中央朝鮮師範學校詩 人集團	1954.08	중앙조선사범학교 시인집단의 기관지. 편 집겸 발행인은 김운호(金允浩). 2호 (1954.09)까지 발행
새 조선 (新しい朝鮮)	新朝鮮社	1954.11	재일본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중앙의 기관 지. 8호(1955.09)부터 『新朝鮮』으로 개제
지하수 (地下水)	朝鮮文學會大阪支部	1955.04	조선문학회 大阪지부 기관지
조선문예	재일본조선문학회	1956.09	한글 잡지. 재일조선문학회 기관지. 2호로 중간된 『조선문학』을 『조선문예』로 개제 하여 3호(복간 1호)부터 발행. 9호 (1958.03)로 중간하기까지 총 7권을 발행
코리아평론 (코리아評論)	코리아評論社	1957.10	32권324호(1989.06)로 종간
친화(親和)	日韓親和會	1953.11	286호(1977.11)로 종간
불씨	불씨동인회	1957.01	한글 잡지. 시 및 시론. 편집 발행인은 김

			동일(金棟日). 3호(1957.11)는 일본어판
조선문제연구 (朝鮮問題研究)	朝鮮問題研究所	1957	7권1호(1968)로 중간
오무라문학 (大村文学)	大村朝鮮文学会	1957.07	大村수용소 내의 大村조선문학회에 의한 문학동인지
백엽(白葉)	韓國文化教育会·白葉同人会	1957.10	월간 종합문화지. 27호(1964.12)로 중간. 비총련계 문화단체 백엽동인회의 동인지. 편집 겸 발행인은 최선(崔鮮)
학지광(學之光)	法政大学朝鮮文化研究会	1957.11	호세이대학(法政大学)조선문화연구회 회보. 편집책임자는 현광수(玄光洙), 편집위원으로는 윤학준(尹學準), 남주희(南珠熙), 임전혜(任展慧), 박기철(朴琪喆)
계림(鷄林)	鷄林社	1958.11	2년4호(1959.12)로 중간. 편집 겸 발행인은 장 두식(張斗植)
가리온(カリオン)	カリオンの会	1959.06	3호(1963.02)로 중간. 『ゼンダレ』의 후계지
조선문예	文芸同神奈川支部	1959.12	한글 잡지.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약칭:文芸同) 神奈川지부 기관지

3. 『민주조선』의 계승지

1950년대는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방직후의 대표적 종합잡지 『민주조선』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예고도 없이 중단된 것처럼 이 시기 제일조선인이 발행한 잡지 수는 격감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미디어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문학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한국전쟁기는 “제1차 재일조선인문학 붐”⁵⁾이 일어난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 『민주조선』의 계승지임을 표방하며⁶⁾ 『조선평론(朝鮮評論)』이 창간된다. 『조선평론』은 오사카조선인문화협회의 기관지로 1954년 8월까지 총 9권을 발행했다. 오사카조선인문화협회는 조련이 해산된 이후 오사카에서 활동한 문화단체의 통일기관으로서 1951년 10월에 결성된 조직이다. 창간호와 2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석범이고, 3호부터 8호까지는 김

5) 宋惠媛(2014)『「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p.144

6) 저자명 미표기(1951)『編集後記』『朝鮮評論』(創刊号) p.65

종명이, 중간호인 9호에서는 신흥식이 편집책임을 맡고 있다. 김종명의 글로 추정되는 창간사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이 잡지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쓰러져가는 이 조국의 순간에, 칼에는 칼로써 싸울 수 없는 우리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⁷⁾에 대한 답을 잡지 발행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민주조선』과 마찬가지로 잡지의 독자는 ‘재일조선동포’와 ‘일본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⁸⁾

창간호는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현안(출입국관리령 시행, 조선인학교 폐쇄령 이후의 민족교육문제 등), 평론, 문학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의 경우, 당시 공화국 문단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손꼽혔던 조기천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의 시 「조선은 싸우고 있다(朝鮮は戦っている)」를 게재하고 있다. 이후에도 공화국 문학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본국의 문학 작품과 문학사, 문학비평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창작으로는 김시중이 시 「유민애가(流民哀歌)」를, 김석범이 단편 「1949년경의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로부터(1949年頃の日記より-「死の山」の一節より)」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4·3사건을 일생의 문학적 테마로 해 온 김석범에게 있어, 「1949년경의 일지에서」는 초기 대표작으로 알려진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文芸首都」1957.12)보다 무려 6년 앞서 발표된 첫 문예지 발표작이다.

2호부터 허남기와 이은직이 집필자로 참가하고 있고, 3호부터는 르포르타주를 추가함으로써 『조선평론』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시키고 있다. 「조선해방전쟁 2주년 기념 특집호」를 기획한 4호에서는 김일성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이라는 글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5호는 공화국 창립 4주년을 기리는 글이 권두언으로 실리는가 하면 『김일성 전기』를 번역해서 연재하기 시작하고 있다. 점차 문학의 비중은 줄어들고 재일조선인 문제와 공

7) 저자명 미표기(1951)「創刊に寄せて」『朝鮮評論』(創刊号) p.3

8) 2호의 「조선의 지식인, 학생 및 동포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는 글에는 조선인문화협회가 『조선평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조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고, 둘째,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 셋째, 전쟁과 일본의 재군비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투쟁, 넷째, 식민지적이고 퇴폐적인 문화정책에 반대하고 민족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민족교육과 서클 조직을 통한 계몽 선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인을 비롯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진실된 조국의 모습과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소개 전달하고,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를 위해 공동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朝鮮人文化協會(1952)「朝鮮の知識人、學生ならびに同胞の皆様へ訴える」『朝鮮評論』(2号) p.1)

화국의 정치사상, 경제와 관련 글이 지면을 채워간다. 7호부터는 오사카조선인 문화협회의 손을 떠나 문예총이 편집에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바뀐다. 『조선평론』을 제일조선인 문화단체들의 연합 기관지로서 한다고 밝힌 8호(1953.10)에는 문학작품이라고는 김시종과 이금옥의 시 2편이 전부다. 발행에 이르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9호(1954.08)에는 강제언, 김달수, 김민, 홍종근이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월간 종합잡지로 재출발하고자 했으나 결국 중간호가 되고 말았다.⁹⁾ 『조선평론』은 제일조선인 외에도 일본인 지식인의 글을 적극 게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 법학자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 아시아경제와 민족문제 연구자 오자키 히코사쿠(尾崎彦朔), 중국평론가 오자키 쇼타로(尾崎庄太郎), 외교평론가 오가타 쇼지(尾形昭二), 문학비평가 구와바라 다케오(桑原武夫)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조선평론』이 추구하고자 한 잡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조선평론』의 뒤를 이어 1954년 11월에 제일조선인의 ‘이론학습지’임을 강조하며 창간된 것이 『새 조선(新しい朝鮮)』이다. 『새 조선』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도모하고, 대중과의 연결을 단단히 하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학습운동을 더한층 강화하고 그 입문서가 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체로서 사상개조 사업에 복무”¹⁰⁾하게 된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론학습지’를 잡지의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학습상담과 독서안내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평론』에 비해 르포르타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르포르타주, 수기, 실천, 투쟁 기록 등을 한데 모아 ‘생활과 투쟁의 기록’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 ‘생활과 투쟁의 기록’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현장, 중소기업가의 산업현장, 외국인등록 갱신 투쟁 현장 등 다양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밖에 공화국 문학의 번역 소개, 시, 에세이, 서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부터 7호까지 편집 겸 발행을 맡고 있던 이찬의를 대신해 8호(1955.09)부터는 김달수가 편집장을 맡으면서 『새 조선』을 『신조선(新朝鮮)』으로 개제하

9) 9호의 편집후기에서는 편집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점과 인쇄소의 파산으로 원고와 지형(紙型)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발행소를 조선평론사로 바꾸면서 월간 종합잡지로서 재출발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10) 저자명 미표기(1954)『編集後記』『新しい朝鮮』(創刊号) p.83

고, 종래의 다소 경직된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하게 된다. 공화국 문학의 번역 소개와 시, 에세이 등 문학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점과 ‘생활과 투쟁의 기록’이라는 코너를 ‘생활 속에서’로 바꿈으로써 잡지 구성면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편집후기」에서 김달수는 『민주조선』, 『조선평론』, 『새 조선』의 경험을 살려 『신조선』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포부와는 달리 『신조선』은 8호 발행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1958년 11월, 장두식이 편집 겸 발행을 맡은 종합잡지 『계림(鷄林)』이 창간된다. 격월 간행을 목표로 했으나, 4호 발행에서 5호 발행까지는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종간의 예고도 없이 5호가 마지막이 되고 있다. 「회람잡지 즈음(回覽雜誌のころ)」(4호)에서 김달수는 ‘계림’이라는 명칭은 해방 전인 1944년에 장두식, 이은직, 김성민과 함께 만든 회람잡지명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회람잡지 즈음」은 김달수가 1946년에 나가노(長野)에서 발간되던 『문예산맥(文芸山脈)』(北信文学会編, 5号)에 게재했던 글로서, 『계림』에 재계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기획했던 잡지 발행의 꿈이 장두식의 적극적인 의지로 『계림』에서 실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래 인용은 「창간의 말」의 서두이다.

우리들은 앞서 1946년부터 50년에 걸쳐 잡지 「민주조선」을 간행한 적이 있다. 이것은 30수호로 한차례의 사명을 마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조선평론」, 「새 조선」이 나오긴 했으나, 모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중략)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 위에 서서 여기에 다시금 계림사를 설립하고, 잡지 「계림」을 간행한다. (중략) 우리들은 이 사이에 “상호 이해”라는 하나의 다리를 놓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에 있다고는 하면서도 거기에는 아직 “어두운”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까지 이 다리를 놓고, 우리들은 그 위의 자그마한 등불인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이 『계림』은 『민주조선』에서부터 추구해 온 이념¹²⁾을 계승하면서 일

11) 저자명 미표기(1958)「創刊のことば」『鷄林』(創刊号) *페이지 표기 없음

12) 『민주조선』은 창간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혁명 과정에 있어서 조선인은 역사적 현실을 어떠한 각도에 서서 파악하고, 어떻게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고 있는가. 환언하면 조선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특히 신탁통치문제를 중심으로 객

본인과의 “상호 이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런 한편, 종합잡지적 성격을 띠면서도 문학의 비중이 높았던 『민주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선 본국의 현대문학을 정력적으로 소개해 가려는 것”¹³⁾을 『계림』의 사명이라고 한 만큼, 『새 조선』과 비교했을 때 시와 소설, 문학비평 등 문학 영역에 있어서의 지면이 증가했다.¹⁴⁾ 집필진의 구성을 보면, 김달수와 장두식 외에도 『민주조선』 때부터 참가한 강위당, 윤자원, 허남기, 이찬의 외에 『조선평론』에서부터 기고한 홍운표(=홍종근)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일본인 기고자의 경우, 김달수가 ‘신일본문학회’와 ‘리얼리즘연구회’에서 친분을 쌓은 인물들로, 특히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와 오하라 겐(小原元)은 『민주조선』에 기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려에서 끌려온 도공 장헌공(張獻功)에 관해 쓴 도마 쓰구아키(当間嗣光)의 「오키나와의 장일육(沖繩の張一六)」(2호), 시모타 세이지(霜田正次)의 저서 『오키나와섬(沖繩島)』을 소개하고 있는 구보타 마사후미(久保田正文)의 독서 안내(3호), 김달수의 「박달의 재판」에 관한 시모타 세이지의 「박달과 사무라이(朴達とサムライ)」(5호) 등의 글을 통해, 『계림』은 오키나와와 오키나와인과의 가교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동시대의 다른 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걸어온 길(私の歩いてきた道)」(장두식, 1호~5호), 「나의 신앙(わが信仰)」(강위당, 1호), 「나의 고향—경성(わがふるさと—京城)」(이방랑, 장동원, 1호), 「김사랑의 등장과 나(金史良の登場と私)」(조규석, 3호), 「우리집의 귀국(わが家の帰国)」(김달수, 4호), 「내 고향·제주도(わがふるさと·済州島)」(김태생, 4호) 등과 같은 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평론』과 『새 조선』에 비해 『계림』은 당시의 시대적 사명으로 재일조선인에게 강조되어 왔던 강령과 문제의식과는 달리 ‘나’가 중심이 되어 있고, 신변잡기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잡지의 성향 때문인지 3호의 「공론·사론(公ろん·私ろん)」에 의하면 총련은 『계림』에 대해 잡지의 배포와 독자 확보를 비롯하여

관적 정세와 주관적 동향은 세계의 주목의 초점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에 표명함과 동시에 과거 3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왜곡된 조선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제부터 전개되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을 이 소책자로, 조선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강호의 현인들에게 그 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 밝히고 있다.(『創刊の辞』『民主朝鮮』創刊号, 1946.04)

13) 저자명 미표기(1958)『編集後記』『鷄林』(創刊号) p.49

14) 문학비평에서 주목할 것은 박춘일이 창간호에서부터 중단된 5호까지 연재한 「근대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象)」이란 글이다.

일체의 재정적인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련의 적극적인 후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계림』은 결국 5호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4. 서클시지 『진달래』와 그 주변 잡지

1950년대의 일본은 서클문화운동¹⁵⁾의 최전성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문화운동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학연구에서뿐 아니라 문화사, 사상사, 정치사적 측면에서 1950년대를 새롭게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50년대 전반은 특히 시(詩)라는 표현 형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직장, 지역, 학교 등에서 무수한 아마추어 시인이 자신의 생활과 사색을 시로써 표현한 “시가 있었던” 시대이다.¹⁶⁾ 시를 써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서클이라는 집단 안에서 시를 쓰고, 읽고, 서로 비평하는 형태로 서클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약했던 주부들을 비롯해 여성들 사이에는 생활기록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50년대는 이와 같이 서클운동과 생활기록운동과 함께 르포르타주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된 이른바 ‘기록’의 시대이기도 하다.¹⁷⁾

이러한 일본사회의 움직임 속에 재일조선인 사이에도 서클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선두주자가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이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서클시지가 『진달래』이다.¹⁸⁾ 『진달래』는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기 전인 1953년 2

15) 서클문화운동이란 글자 그대로 서클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운동을 말한다. 이때 ‘서클’이라는 용어는 프롤레타리아문학계열의 비평가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가 1931년 러시아어에서 가져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용어 자체가 좌익의 정치용어에서 비롯된 만큼 1950년대 전반의 서클문화운동은 일본공산당의 활동방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16) 道場親信(2016)『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1950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pp.2-3

17) 鳥羽耕史(2010)『1950年代：「記録」の時代』, 河出書房, pp.7-18 참조

18) 1950년대의 서클문화운동에 대한 연구 과정 속에 이들의 서클활동과 서클시지 『진달래』의 중요성이 발견되면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복간판 발행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진달래』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량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진달래』복간판 발행을 주도한 진달래연구회(ヂンダレ研究会)의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ヂ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人文書院, 2010.05)와 연구회의 중심인물인 우노다 쇼야(宇野田尚也)의 『在日朝鮮人のサークル運動—大阪朝鮮詩人集団『ヂンダレ』を中心に』(『「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影書房, 2016.12) 수록), 국내에서는 마경옥의 『진달래』연구 논문 4편을 비롯하여, 이승진과 하상일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1950년대에 창간된 재일조선인 잡지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

월에 창간하여 1958년 10월에 20호로 중단되었다. 창간 당시 김시종을 포함한 9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3호(1953.06)에 기재된 회원명부에는 29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진달래』는 창작시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각 호마다 그 구성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담은 ‘안테나’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르포르타주가 ‘현장스케치’로 대치되거나, 서신 왕래나 아동들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했다.

『진달래』의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1950년대는 각 지역에서 서클단체들이 생겨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조선평론』9호(1954.08)의 권두언에는 『진달래』가 창간된 1953년도를 “우리 문화계 결집의 해”로 평가하고 있다. 예술 분야의 조직 확대 강화와 그 사업성과와 더불어 각지에 다채로운 문화서클이 생겨나 각기 활동을 개시하고 있어 “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장관”이라고 총평하고 있다.¹⁹⁾ 김시종에 의하면 『진달래』가 발행되던 당시 재일조선인들 사이에는 60개에 가까운 서클이 생겨나 있었다.²⁰⁾ 이와 같이 한국전쟁이라는 암흑기를 지나 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하자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으나, 당시에 발행된 서클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일조선인 서클단체와 서클지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달래』8호(1954.06)의 표지²¹⁾와 각 호마다 소개되는 기증지명, 『조선문학』2호(1954.05)에 소개되어 있는 기증지명, 그리고 『조선평론』9호(1954.08)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진달래』 이후 각지에 확산된 서클운동과 서클지의 실태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표2】 1950년대 재일조선인 서클문화운동 단체와 서클지

서클지명	지역	단체/서클 명칭	비고
ヂンダレ	大阪	朝鮮詩人集團	1953년 3월 창간
大同江	川崎	朝鮮人文化サークル	

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진달래』의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시 작품의 내용적 분석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의 서클문화운동을 고찰하는 자료로써 당시 발행되었던 잡지들간의 상호교섭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9) 申鴻湜(1954)「卷頭言 ふたたび文化戦線の統一と拡大について」『朝鮮評論』(9号) p.7

20) 金石範·金時鐘(2001)『なぜ書きつ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p.143

21) 『진달래』 제8호(1954.06)의 표지는 『모종』, 『황파(荒波)』, 『수림(樹林)』, 『진진』, 『대동강(大同江)』, 『신맥(新脈)』, 『문화전선(文化戦線)』, 『산울림』, 『무지개』와 같은 서클지명과 이수(李樹)의 제1작품집 『저항시(抵抗詩)』가 장식하고 있다. 이 중 『모종』, 『진진』, 『무지개』의 경우, 단체명과 출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서클지이다.

樹林	東京	「樹林」同人会	1953년 11월 창간. 한글
靑丘	名古屋	「靑丘」サークル	1955년 2월 창간
水豊	東京	朝鮮大学校文芸部	
文化戰線	名古屋	東海朝鮮文化人協會	
산울림	名古屋	愛知文学サークル	1953년 12월 창간. 한글
新脈	東京	「新脈」文学同人会	1954년 3월 창간. 한글
荒波	福岡	朝鮮人文芸同好会	
泉水	神戸	朝鮮中高級学校文芸部	
白頭山	東京	早稲田大学「白頭山」同人会	
백두산	東京	朝鮮中高校	학내 한글 벽신문
朝文研	鶴見	朝鮮文化研究会	
大村文学	長崎	大村朝鮮文学会	1957년 7월 창간
시정원(詩庭園)	千葉	中央朝鮮師範学校詩人集團	1954년 8월 창간
미확인	大阪	舎利舎文学サークル	
포뿌라	神戸	朝鮮文学サークル	
창조	千葉	朝鮮師範学校	
성좌군	和歌山	朝鮮人教職員同盟	
추풍령(秋風嶺)	미확인	미확인	
모종	미확인	미확인	
전진	미확인	미확인	
무지개	미확인	미확인	
종달새	미확인	미확인	

상기의 표는 동시대에 발행된 잡지들이 제시하는 정보에 의거해 작성한 목록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달래』와 『대동강』, 그리고 『오무라문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²²⁾ 『대동강(大同江)』은 가와사키(川崎)의 조선인문화서클 대동강집단의 기관지이다. 창간 정보는 명확하지 않으나 7호(1954.07)가 대동강집단 1주년 기념호라는 점과 격월 간행이라는 발행정보를 통해 창간은 1953년 7월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7호는 평론, 수필, 르포르타주, 시(6편), 창작(연재소설 2편과 단편소설 1편) 등 총 92쪽에 달하는 비교적 충실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동호에 기재된 회원은 총 19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문단련 소속이고 그 외 조선인학교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인 한설야의 「재일조선인 문화활동가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다」라는 글

22) 2016년 일본에서 송혜원에 의해 1954년부터 1970년 사이의 재일조선인의 문학자료를 모은 복각판이 출판되었다. 전3권의 복각 자료집은 1960년대의 잡지가 대부분이고, 1950년대 자료로는 『大村文学』『白葉』『学之光』, 문예동 가나가와(神奈川)지부의 기관지로 1959년 12월에 창간된 한글잡지 『조선문예』정도이다. 송혜원은 자료집 해설에서 1950년대의 서클운동과 관련된 잡지들에 관해서는 동일한 출판사에서 따로 출판할 예정이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번역되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대동강집단은 민전과 문단련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강집단에게 있어 “서클이란 것은 마치 우리들의 집과 같다. 흔들흔들하고, 오래되고, 또 새 판자를 붙인 우리들 가난한 자의 집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큰 의의가 있고 인생의 중대한 길러주신 어머니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²³⁾이다. 이와 같이 ‘집’의 개념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대동강집단의 회원 모집 광고에는 “일본인 조선인을 불문하고 평화와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바라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동강을 “일조 친선과 양 국민의 우호의 근간”²⁴⁾으로 키워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전일본의 모든 서클활동과의 연대, 국제적인 청년운동의 교류, 평화집단·민주단체와의 강력한 평화운동의 추진, 창작방법론의 이론 연구 활동, 월간 실현, 각종 레크레이션 등등”²⁵⁾이다. 대동강집단이 제시하는 서클에 대한 인식과 목표, 그리고 활동 내용은 당시의 많은 서클단체가 지향한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57년 7월에 창간한 『오무라문학』은 나가사키현에 소재하는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된 재일조선인들이 결성한 서클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무라수용소는 1950년 12월에 개소하여 이후 약 20년간 운용되었으나, 개소 초기에는 ‘오무라조선인수용소’라 불릴 만큼 조선인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으로 밀입국한 자,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등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오무라조선문학회가 결성되었고 그 기관지로 『오무라문학』을 발행한 것이다. 창간호에는 아사다 이시지(淺田石二)의 「오무라문학 창간을 기뻐하다(大村文学の創刊を喜ぶ)」란 글과 함께 그의 시가 실려 있다. 이시다는 <<원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原爆を許すまじ)>>라는 노래의 작사자로 알려진 인물로, 1950년대에는 시모마루코문화집단(下丸子文化集団)과 남부문학집단(南部文学集団)의 회원으로서 서클문화운동에 참여한 공장 노동자이자 시인이다. 이와 같이 이시다의 글이 창간호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과 『오무라문학』이 남부문학집단 인쇄부에서 인쇄되었다는 점은, 『오무라문학』이 당시 일본인 서클운

23) 鄭白雲(1954)「朝鮮青年のとしび」大同江』『大同江』(7号) p.9

24) 저자명 미표기(1954)「會員募集!」『大同江』(7号) p.8

25) 白玲(1954)「編集後記」『大同江』(7号) p.92

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송혜원은 오무라조선문학회가 결성된 것은 1956년경이고 총련 산하의 재일 조선문학회의 회원 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즉 재일조선문학회와 관련된 단체라는 것인데, 실제 『오무라문학』을 창간하기 전인 1957년 1월에 발행한 재일조선문학회의 기관지 『조선문예』5호는 오무라조선문학회의 작품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오무라조선문학회 작품 특집’에는 오무라조선문학회 회원의 시 4편과 수필 1편, 그리고 수용소 외부 회원으로 보이는 김운호의 수필이 실려 있다. 따라서 오무라조선문학회는 재일조선문학회의 지부적 성격을 지니면서 당시의 서클문화운동의 조류 속에 탄생한 서클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문예』에서 오무라조선문학회의 작품을 게재하고 있는 것처럼,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잡지는 잡지 상호간의 소개와 비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선평론』9호(1954.08)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서클의 동향에 관해 김민의 「문학서클에 대해」와 홍종근의 「오사카 시인집단「진달래」의 1년」이라는 글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김민은 『대동강』을 비롯하여 『수림』, 『산울림』, 『신맥』, 『황과』 등의 서클지를 소개하고, 특히 『수림』과 『산울림』에 대해서는 한글로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달래』의 발행 책임자인 홍종근의 경우, 『조선평론』지상을 통해 오사카에서 시인집단을 형성하게 된 경위와 서클지지 발행 과정 등 첫 결성부터 약 1년간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선평론』8호에는 『황과』창간호에 실린 이길남의 시 「밤의 도키와바시(夜のときわ橋)」가 전재(轉載)되어 있다.

한편, 『계림』(2년3호/통권4호, 1959.06)에서는 김철앙이 「청구」서클을 소개하고 있다. 문단련 결성 후 나고야(名古屋) 지역에서도 도카이(東海)조선인문화협회가 생겨났고 기관지 『문화전선』을 발행하고 있지만, 협회 하부에도 여러 서클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청구」서클이다. 김철앙의 글에 의하면 ‘계림’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아명인 ‘청구’를 사용한 「청구」서클의 서클지 『청구』는 1955년 2월부터 5호까지 발행했으나 1년 넘게 차호를 발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김철앙은 『청구』창간호의 권두언 전문(全文)을 인용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일본어로 서클지를 발행한다는 것에 대한 서클 회원들

26) 宋惠媛編(2016)『在日朝鮮人資料叢書14 在日朝鮮人文學資料集 1954~70 1』, 綠蔭書房, p. xxi
또한 송혜원은 오무라조선문학회와 서신 왕래를 한 김운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무라문학』이 1호로 중단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두언에서 『청구』에 대해 조선인 단체의 반응은 「청구」회원들이 대부분 모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국어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이 아니고, 의미도 없다”는 비판 일색인데 반해 일본인 독자의 비평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말한다.²⁷⁾ 결국 『청구』가 5호 이후 계속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잡지 발행에 드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크긴 했으나, 여기에는 총련 결성 이후 재일조선인 단체에 강요한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과 한글 사용 문제가 재일 2세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억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문예지상에서 공론화된 것이 『진달래』 비판이다. 민전에서 총련으로의 노선전환에 관해서는 2장에서 언급했지만, 총련 결성으로 좌파 성향의 재일조선인단체의 대부분이 공화국에 직결되는 형태로 재편되면서 김시종과 『진달래』를 겨냥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진달래』13호와 14호에서 정인과 송익준의 논쟁에서 발단하여, 「김시종 연구」를 특집한 15호에서 홍운표가 김시종의 첫 작품집 『지평선(地平線)』에 대해 평한 「유민의 기억에 대해(流民の記憶について)」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김시종이 「나의 작품의 장과 ‘유민의 기억’(私の作品の場と「流民の記憶」)」(16호)과 「맹인과 뱀의 언쟁(盲人と蛇の押問答)」(18호)으로 반박했다.²⁸⁾ 『진달래』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우노다 쇼야(宇野田尚也)의 논고에 의하면, 『진달래』비판으로 인해 많은 서클회원들이 이탈했고 대중적 기반을 가진 서클시지가 소수의 동인에 의한 동인시지로 성격이 변화했으며 결국 중간으로 이어졌다.²⁹⁾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도 허무주의와 민족적 주체성의 상실에 대한 비판이 재일 2세의 현실과 일본어에 의한 창작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노다는 시 창작을 둘러싼 성찰 속에서 ‘재일’과 ‘2세’라는 문제군을 명확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재일문학의 원점”이 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달래』 논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라고 평가하고 있다.³⁰⁾

27) 金哲央(1959)「『靑丘』(名古屋)サークルのこと」『鷄林』(2年3号/通卷4号) p.13

28) 조삼룡의 「정형화된 의식과 시에 대해(定型化された意識と詩について)」(『진달래』19호)외에 정인의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쓰는 것에 대해—「진달래」창작상의 문제(朝鮮人が日本語で詩をかいてることについて—「ヂンダレ」創作上の問題)」(『樹木と果実』1956.09)와 김시종의 「제2세문학론 젊은 조선시인의 아픔(第二世文学論—若き朝鮮詩人の痛み)」(『現代詩』1958.06)도 『진달래』비판과 관련된 논고이다.

29) 宇野田尚也(2016)「在日朝鮮人のサークル運動—大阪朝鮮詩人集団『ヂンダレ』を中心に」『「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 影書房, p.82

30) 宇野田尚也(2010)「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ヂンダレ』『カリオン』」『「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女の詩誌『ヂ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 p.28

5년 넘게 발행을 지속해 온 『진달래』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노선전환으로 인해 중단하고 말았으나, 『진달래』는 당시의 아마추어 시인들의 생활과 투쟁의 기록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50년대의 서클문화운동의 양상과 서클단체들의 상호교섭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진달래』의 지면을 통해 오사카조선시인집단에 기증된 잡지 수는 총33종³¹⁾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재일조선인의 서클지 5종을 제외한 28종이 일본인 서클지이다.

1950년대는 재일조선인이 『신일본문학』과 신일본문학회가 창간한 『생활과 문학』, 『신일본문학』계의 중앙시지인 『현대시』, 그리고 『인민문학』, 『수목과 과실』, 『시학(詩學)』 등에도 작품 발표를 하고 있고, 잡지들 사이의 전재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서클활동이 집단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진달래』3호에 발표된 박실과 이정자의 시가 『문학보』4호에, 『진달래』12호 아동작품란에 발표되었던 홍효일의 「가게 보기(みせばん)」가 『생활과 문학』창간호에, 『진달래』13호에 발표된 홍종근의 「나의 바다(私の海)」가 『인민문학』계의 중앙시지인 『시운동』15호에 전재된 사실을 회원소식란 『진달래』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클 소개와 서클지평, 서클지간의 전재는 1950년대의 서클운동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서클지에 한정되지 않고,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잡지에도 동일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각 잡지들의 광고란에는 재일조선인이 발간한 단행본과 잡지 외에 일본의 서적과 잡지도 소개되고 있다.³²⁾

1950년대에는 서클문화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진달래』 외에도 시 전문지가

31) 『별(星)』(人民文学大阪友の会), 『율동(律動)』(律動詩社), 『철과 모래(鉄と砂)』(鉄と砂詩人会), 『시노다 야마(信太山)』(信太山詩の会), 『동지(仲間)』(群馬大学工学部文芸サークル), 『노동자연극(労働者演劇)』(関西労働者演劇集団), 『보리피리(むぎ笛)』(和歌山大学学芸部内むぎ笛の会), 『숨결(いぶき)』(大阪総評内大阪文学学校), 『군(群)』(《群》詩人集団), 『시궁창(どぶ川)』(どぶ川サークル), 『생활과 문학(生活と文学)』(新日本文学会), 『현대(現代)』(須藤現代の会), 『화산(火山)』(火山サークル), 『수목과 과실(樹木と果実)』(五味書店). 이하 14종은 서클단체를 확인하지 못한 서클지로 『시운동(詩運動)』, 『속삭임(ささやき)』, 『내일(あした)』, 『별꽃(はこべ)』, 『콩(どん)』, 『젊은이(若者)』, 『등불(ともしび)』, 『장(ながれ)』, 『성곽도시(城下町)』, 『램프(ランプ)』, 『시인 우체통(詩人ポスト)』, 『나상(裸像)』, 『굴뚝(えんとつ)』, 『국제전전문화(國際電々文化)』. 그밖에 재일조선인 관련 서클지로 『성좌군』(和歌山朝鮮人教職員同盟), 『청구(靑丘)』(靑丘サークル), 『추풍령(秋風嶺)』, 『종달새』, 『창조』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32) 『새 조선』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역사평론(歴史評論)』(歴史評論編集部), 『문학평론(文学評論)』(理論社), 『이론(理論)』(民主主義科学者協会), 『신시대(新時代)』(新時代社), 『학습의 벗(学習の友)』(学習の友社), 『신독서(新読書)』(新読書社),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新日本文学会), 『일본문학(日本文学)』(未来社), 『문학의 벗(文学の友)』(文学の友社) 등과 같은 일본의 잡지 광고도 실고 있다.

발행되었다. 1954년 8월에 중앙조선사범학교시인집단이 기관지 『시정원(詩庭園)』을 창간한다. 『시정원』은 한글 시와 일본어 시를 함께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진달래』가 발간되고 있던 1957년 1월에 한글을 사용한 시 전문지 『불씨』(불씨동인회)가 창간되었고, 1959년 6월에는 『진달래』의 후발 주자로 시를 쓰기 시작한 양석일이 개인지 『가리온(カリオン)』을 창간하기도 했다.

5. 재일조선문학회 관련 잡지

재일조선문학회의 모체이기도 한 재일본조선문학자회 회원은 1947년 2월에 결성된 후 『민주조선』을 비롯해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활발한 문예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해 『민주조선』이 14호를 발행한 시점인 1947년 10월에는 『조선문예(朝鮮文芸)』(朝鮮文芸社)가 창간된다.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편집 겸 발행인인 김삼문이 집필진의 대부분이 조선문학자회 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³³⁾, 이석주를 제외한 김달수, 허남기, 강진철(=강현철), 윤자원, 이은직은 『민주조선』의 집필진이기도 하다.

다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와 이재봉의 논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³⁴⁾ 『조선문예』는 해방 직후 표현활동에 참가한 문화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용어문제’를 창간호에서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작가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의 「조선작가와 일본어 문제(朝鮮作家と日本語問題)」(창간호)를 비롯하여 제2권2호(통권4호, 1948.04)에서는 「용어문제에 대해」 특집을 마련, 이은직, 어당,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 김달수가 재일조선인문학과 일본어 사용 문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33) 金三文(1947)「編集後記」『朝鮮文芸』(創刊号) p.41

34) 『朝鮮文芸』에 관해서는 川村湊가 책임편집한 『文学史を読みかえる⑤「戦後」という制度—戦後社会の「起源」を求めて』(インパクト出版会、2002.03)에 수록된 高柳俊男의 「『朝鮮文芸』にみる戦後在日朝鮮人文学の成立」과 이재봉의 「해방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芸』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42집, 2006.04)에서 서지 및 수록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高柳와 이재봉의 논고는 『조선문예』에서 논의화된 ‘용어문제’에 착목하고 있다. 논자는 이들 선행연구와는 초점을 달리하여 조선어와 일본어를 둘러싼 갈등문제보다는 1950년대 이후 『민주조선』 계열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재일조선문학회’의 활동, 즉 한글 잡지 발행을 주도하게 되는 이들 활동의 시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하고자 한다.

35) 어당과 김달수의 글을 통해 두 사람은 이미 『조선신보(朝鮮新報)』(朝鮮新報社) 지상에서 언어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문예』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썬인

언어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조선문예』 4호가 발행되기 한 달 전에 총 16쪽의 한글판 『조선문예』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재일조선인이 처해 있는 언어 환경이라는 현실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한글 사용이 진정한 민족문학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1948년 1월, 재일조선문학자회와 주변 단체들을 흡수하면서 새롭게 결성된 재일조선문학회는 한글 잡지 발행에 주력하게 된다. 조련 시대의 기관지 『우리문학』(1948년 8월 창간)과 『봉화』(1949년 6월 창간) 모두 한글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조련 해산 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중』, 『문학보(文學報)』, 『조선문학』과 『조선문예』와 같은 기관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문학보』를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발행된 잡지들이다.

1951년 11월경에 창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중』은 3호와 5호가 박경식의 재일조선인 관련 자료집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3호(1952.01)는 소설 2편, 시 3편, 그리고 김일성전기로 총 3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3호에 게재된 4호(1952.02) 발행 광고를 보면, 소설에서는 이은직과 남시우, 희곡은 박원준, 그리고 시는 허남기와 박문협이며 총 65쪽으로 3호에 비해 내용이 보다 충실해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4호 발행 후 5호(1952.10) 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6호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5호에 『군중』 7호 원고모집 광고가 있는 것으로 적어도 6호까지는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5호는 3호와 비교해 아마추어 필자 수가 증가했다. 오림준, 남시우, 박원준 등의 재일조선문학회 회원 외에 다양한 필자명이 올라 있고, 도쿄조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집을 특집으로 실고 있다.

이어서 1953년 3월에 창간한 『문학보(文學報)』는 한국전쟁기에 활동이 부진했던 재일조선문학회가 1952년 1월에 재결성하면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재일조선문학회의 기관지 중 일본어로 발행된 예는 『문학보』와 재일조선문학회 오사카지부의 기관지로 1955년 4월에 창간한 『지하수(地下水)』 정도인데, 『지하수』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학보』도 현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호(1953.08)뿐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김달수로 명기되어 있고, 편집후기

데, 먼저 어당은 현재 ‘조선어’로 순문예지를 발행했을 경우, 읽을 수 있는 조선인 독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일본어에 의한 문예운동은 “조선문학의 하나의 기형”이고 “일본문학의 한 장르”에 불과하며 조선문학 운동에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김달수의 경우, 일본어는 과거 “조선문학의 존위와 발전을 파괴하고, 그것이 불행했던 모든 것의 원인”임을 숙지하고 있고, 노예적 환경에 길들여진 채 문학주체로서의 자기 확립 없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적의 무기”이기도 한 일본어가 재일조선인에게 진정한 독립=탈식민지화를 위한 무기로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김석범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평론과 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진은 김달수와 이은직 외에 『조선평론』에도 집필한 전화광, 『문학보』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총련 결성 후에는 주로 한글 잡지 발행에 참여하게 되는 김민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후기에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4호 원고가 인쇄소에 맡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8·15와 정전 성립 기념”이라는 테마는 다음 호로 미루겠다고 하고 있으나³⁶⁾, 실제 5호는 발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3월에는 한글 잡지 『조선문학』을 창간한다. 집필진으로는 김민을 포함하여 주로 한글로만 표현활동을 하게 되는 남시우, 허남기, 리찬의, 리원우, 류벽과 김달수가 참여하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김달수의 글은 1953년 12월에 집필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글에 의하면 재일조선문학회는 1953년 1월부터 “재건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회원은 48명이며, 오사카, 나고야, 가와사키, 고베, 교토 등에 지부가 되었고 또 될 예정”³⁷⁾이라고 한다. 기관지였던 『문학보』도 발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정전을 기념하면서 그간 부진했던 활동을 『조선문학』 창간과 함께 재출발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호에는 재일조선문학회가 결성될 당시 본국의 문학과 보조를 맞추고자 했던 것처럼 「제1차 조선작가동맹 회의 결정서」와 「전국 작가예술가대회 결정서」를 자료로 실고 있다. 그리고 편집을 맡은 남시우의 시, 르포르타주, 평론 외에 아동문학의 발전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동화 작품이 실려 있다. 또한 『문학보』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문학서클운동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³⁸⁾

이어서 1956년 11월에는 『조선문예』라는 한글 잡지가 발행된다. 창간호는 발견되지 않고 3호부터 시작되고 있는 『조선문예』에 대해 송혜원은 2호까지 발행한 『조선문학』을 이어서 3호부터 발행된 것이라고 한다.³⁹⁾ 실제 『조선문

36) 石範(1953)「編集後記」『文學報』(4号) p.33

37) 김달수(1954)「우리 문학운동의 전진을 위하여—재일조선문학회 제5회 대회 일반 보고」『조선문학』(창간호) p.1

38) 『조선문학』창간호에서 「문학 씨-클운동에 더 큰 관심을 돌리자」를 발표한 바 있는 김민은 2호(1954.05)에서도 오림준의 시집 외에 후쿠오카현 조선인문예동호회의 『황파(荒波)』(2집), 수림동인회(도쿄조선고등학교 동창회)의 동인지 『수림(樹林)』(9호), 도카이조선문화인협회 기관지 『문화전선(文化戰線)』(3호) 등의 서클지를 소개하고 있다.

39) 宋惠媛編(2016)『在日朝鮮人資料叢書14 在日朝鮮人文學資料集 1954~70 1』, 綠蔭書房, p.xi
여기서 송혜원은 2호까지 발간된 『조선문학』의 뒤를 이어 『조선문예』가 3호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제한 이유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예』3호에서 5호를 보면 『조선문학』과는 달리 재일조선문학회의 기관지(紙)에 가깝고⁴⁰⁾, 편집후기와 같은 발행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조선문예』 자체를 통해서는 개제한 이유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문학』2호 발행이 1954년 5월이고, 이로부터 약 2년 후에 『조선문예』3호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조선문학』의 중단에는 총련 결성(1955.05)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련에 이어 1950년대 중반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을 지도해 온 민전이 해산되고 총련이 결성되자, 문단련은 문단협으로 개편되고 총련의 문화선전부에 직결됨으로써 ‘재일조선문학회’도 총련의 문화선전부 산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조선문예』는 재일조선인의 문화단체가 1959년 6월에 결성되는 문예동에 흡수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시기에 발간된 잡지라 할 수 있다. 총련 결성이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총련 결성 직후에 발행한 『새 조선』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 조선』8호(1955.09)는 ‘조선총련 활동방침’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여기에는 총련 결성에 따른 「선언」·「강령」, 외에 총련의 활동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을 공화국의 공민으로 규정하고, “조선총련과 산하 각 단체는 외국의 어떤 정치적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또한 외국의 정치적 분쟁에 가담해서도 안”⁴¹⁾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단체를 총련에 결속시키고 있다. 즉, 일본공산당의 지도방침에서 벗어나,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재일동포의 생활과 교육 등을 포함한 민족적 권리를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재일조선문학회의 활동 방침도 총련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조선문예』(8호, 1957.11)의 재일조선문학회 중앙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일조선문학회는 총련 결성에 앞서 개최된 6차 임시 전국대회에서 “조국의 문예 로선에 충실하며 조선문학의 혁명적 전통”에 입각할 것을 결의하고, 관념주의와 도식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레알리즘”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제1차 조선작가동맹 회의(1953.09)에서부터 강조되어오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평양에서 열린 조선작가동맹 제2차 중앙위원회(1956.11)에서 허남기, 남시우, 김민이 조선작가동맹의 정맹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전하고, 국어에 의한 창작을 고취하기 위해 한글 시집 발간과 한글 시 전문지 『불씨』(불씨동인회) 발간을

40) 6호(1957.04)부터는 기관지적 성격을 탈피하여 잡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41) 저자명 미표기(1955)『5. 조일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새 조선』(8호) p.34

높이 평가하고 있다.⁴²⁾

『조선문예』8호에 실린 「제7차 재일조선문학회 회의 결정」을 보면 김달수, 김시중, 허남기, 남시우 등 총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는 창작 방법을 둘러싼 문제와 용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총련 결성 이듬해에 『진달래』지상에서 펼쳐지는 김시중과 『진달래』 비판을 통해 표면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4장에서 언급했다.

『조선문예』9호(1958.03)의 광고에 의하면 10호는 재일조선문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특집함과 동시에 활자판으로 발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나, 10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문예동 결성 후인 1959년 12월에는 문예동 가나가와지부에서도 동일한 명칭의 한글 잡지가 창간되기도 했으나, 재일조선문학회의 기관지 『조선문예』와는 다른 것이다. 한글 잡지는 재일조선문학회 관련 잡지 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새싹』, 『어린이의 별』)와 강순, 김태중, 오임준, 김동일(=김윤)등을 포함한 7명이 불씨동인회를 결성하고 시와 시론을 중심으로 한 잡지 『불씨』(1957.01 창간), 그리고 재일조선미술회의 기관지 『조선미술』 등이 있다.

6. 나오며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은 이념을 달리하는 독립 국가를 수립한 본국의 민족분단 전쟁과 민족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삶을 위협하는 GHQ와 일본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운동의 궤적이 담긴 귀중한 자료가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잡지였다. 이러한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자료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에서 전후문화운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의 서클시지 『진달래』와 『가리온』의 존재가 새롭게 조명되고 북각관이 발행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또한 종래의 연구행태와 같이 특정 잡지에 한정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에 대해

42) 조선문학회 중앙위원회(1957)「총괄보고와 당면한 활동 방침」『조선문예』(8호) pp.8-10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잡지들까지도 포함하여 고찰했다.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950년대의 재일에스닉 잡지는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조선평론』, 『새 조선』(『신조선』), 『계림』과 같이 1946년에 창간된 『민주조선』의 계보를 잇는 잡지이다. 해방 직후부터 활발히 진행된 표현활동이 한국전쟁 발발과 GHQ의 재일조선인 단체 탄압으로 중단되었으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에 『조선평론』을 창간하면서 『민주조선』이 추구했던 이념을 계승하고자 했고 『새 조선』(『신조선』)과 『계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계림』의 집필진이 『민주조선』 때부터 참여한 멤버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잡지의 발행 취지는 재일조선인단체를 규합하는 주류세력이 변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두 번째는 『진달래』, 『대동강』, 『오무라문학』 등의 서클지와 그 주변 잡지이다. 1953년 2월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의 서클시지 『진달래』가 창간되자, 일본의 생활기록운동과 서클운동과 연동하면서 재일조선인들 사이에도 50여개의 서클이 생겨났다. 문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클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들 서클단체들은 재일조선인 단체뿐 아니라 일본인 서클과도 연대하여 서클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비평을 하는가 하면 잡지간의 전재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로써 『진달래』가 발행되는 1953년부터 1954년에 걸친 기간은 재일조선인 지식인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중까지도 적극 참여한 재일조선인 문화운동사에 있어 최전성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군중』, 『문학보』, 『조선문학』과 『조선문예』 등 재일조선문학회가 관여한 잡지가 그것이다. 재일조선문학회는 조직 결성 때부터 본국의 문학계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에서 민족문학을 재건하고자 했다. 재일조선문학회의 전신인 재일조선문학자회에서부터 이미 재일조선인의 용어문제가 대두되었고, 이후 재일조선문학회가 결성된 후에는 『문학보』를 예외로 모두 한글로 발행되었다. 특히 1955년에 총련이 결성된 후에는 재일조선인을 공화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주체성 확립과 함께 한글에 의한 표현활동이 강요되었다. 이로 인해 서클문화운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시작한 아마추어 대중들은 물론, 해방 후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문화인들 사이에도 일본어처럼 모국어

를 구사할 수 없는 재일 2세의 경우 집필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총련의 방침에 적극적이었던 허남기, 남시우, 김민이 조선작가동맹에 흡수되면서 이후 이들의 일본어에 의한 표현활동도 중단된다.

1950년대의 잡지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자료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난점이 뒤따른다. 그것은 일본의 서클문화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미치바치카노부(道場親信)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⁴³⁾ 대문자의 ‘정치’라는 걸림돌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부터 재일조선인 문화인은 좌파적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을 연구함에 있어 정치적 각인을 중시할 경우,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은 공화국 지향의 좌파운동으로 폄하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운동의 중심에는 ‘공작자(工作者)’라 불린 코뮤니스트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의 문화운동이란 이들의 주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쟁 직후(해방 직후)부터 전개된 문화운동은 전쟁 혹은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억제되었던 문화에 대한 욕구, 표현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대중문화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산물이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은 당시 주류였던 대중단체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조련, 민전, 총련 등 규합 단체가 변화하는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단체에 소속된 문화인들은 주류 세력의 변화와 지도방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다양한 잡지를 횡단하면서 표현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로 인해 1950년대에 발행된 잡지들의 경우, 일반 대중이 중심이었던 서클지를 예외로 한다면, 집필진의 대부분이 겹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쳐 1955년의 노선전환은 해방직후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 온 문화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재일조선인을 공화국의 공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강하게 규제해 왔고,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영역에 있어 원초적인 언어문제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50년대의 전·중반기에 비해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활동은 침체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43) 道場親信(2016)『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1950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p.62

【참고문헌】

- 이상봉(2006)『해방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芸』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42집, pp.359-385
- 宇野田尚也(2016)『在日朝鮮人のサークル運動—大阪朝鮮詩人集團『ヂンダレ』を中心に』『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 影書房, pp.70-87
- _____ (2010)『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ヂンダレ』『カリオン』』『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ヂ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 pp.16-31
- 金石範·金時鐘(2001)『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pp.133-134, p.143
- 宋惠媛編(2016)『在日朝鮮人資料叢書14 在日朝鮮人文学資料集 1954~70 1』, 緑蔭書房, p.xi, p.xxi
- 宋惠媛(2014)『『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p.129, p.144
- 高柳俊男(2002)『『朝鮮文芸』にみる戦後在日朝鮮人文学の出自』『文学史を読みかえる⑤「戦後」という制度—戦後社会の「起源」を求めて』, インパクト出版会, pp.56-66
- 鳥羽耕史(2010)『1950年代：「記録」の時代』, 河出書房, pp.7-18
- 福永文夫(2015)『日本占領史 1945-1952』, 中央公論新社, pp.3-349
- 文京洙(2000)『戦後日本社会と在日朝鮮人③—日本共産党と在日朝鮮人』『ほるもん文化9 在日が差別する時される時』, 新幹社, pp.191-204
- 道場親信(2016)『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1950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pp.2-3, p.62
- 梁永厚(1994)『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1945—1965』, 未来社, pp.9-240

《 텍스트 》

- 宋惠媛編(2016)『在日朝鮮人資料叢書14 在日朝鮮人文学資料集 1954~70 2』, 緑蔭書房
- 朴慶植編(2001)『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第8巻~第10巻 朝鮮人刊行新聞・雑誌(1)~(3)』, 不二出版
- 『復刻『民主朝鮮』時代の在日朝鮮人誌 前篇『民主朝鮮』本誌 第1巻~第4巻』, 明石書店, 1993
- 『大阪朝鮮詩人集團機関誌/復刻版 ヂンダレ・カリオン 第1巻~第3巻』, 不二出版, 2008
- 『朝鮮文芸』創刊号(1947.10)~2年4号(通巻5号、1948.11)
- 『鷄林』創刊号(1958.11)~5号(1959.12)
- 『조선문학』창간호(1954.03)~2호(1954.05)
- 『조선문예』3호(1956.09)~9호(1958.03)
- 『불씨』창간호(1957.01)~3호(1957.11)

논문 투고 일자 : 2017. 07. 18.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要 旨 >

 在日朝鮮人のエスニック雑誌研究
 - 1950年代を中心にして -

蘇明仙

今まで在日朝鮮人のエスニック雑誌に関する研究は各時代を代表する雑誌を中心に行われてきた。しかし、1950年代の場合、資料面での制約もあって長い間空白のままであった。ところが2000年代に入って生活記録運動とサークル運動として展開された戦後文化運動への関心が高まっていくなか、1950年代の在日朝鮮人の文化活動の一部を解明してくるサークル詩誌『ヂンダレ』と『カリオン』が復刻版として発行された。本稿では先行研究のように特定雑誌を中心にする研究から離れ、今まで研究対象から排除されてきた雑誌までもすべて視野に入れて、1950年代の在日朝鮮人の文化運動の全体像を提示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1950年代は在日朝鮮人を糾合する大衆団体が朝連から民戦へ、さらに総連へと変化していく。組織の変化によって雑誌の性格も少々変わってくるが、この時代に創刊された雑誌は発行主体によって大きく三つの流れで説明できる。その一つ目は『民主朝鮮』の系譜を継ぐ雑誌、二つ目はサークル詩誌『ヂンダレ』とその周辺の雑誌、三つ目は在日朝鮮文学会関係の雑誌である。この三つの流れによる分析を通しては在日朝鮮人が刊行した雑誌の現況だけではなく、雑誌相互の交渉の実態と日本社会の戦後文化運動との連帯と交流の様相が伺える。また祖国のイデオロギー戦争と民族として生きる権利を脅かすGHQと日本政府とに立ち向かって闘ってきた在日朝鮮人の闘争の軌跡をたどることができよう。

A Study on the Ethnic Magazine of Zainichi Koreans with a focus on the 1950s

So, Myung-Sun

Historically, the study of ethnic magazine of Zainichi Koreans was mainly conducted by the magazine which represented each period. But, in the case of the 1950s, there was a gap due to data restrictions. This blip was fortunately resolved as interest in post-war cultural movements which was developed in the form of a Life-Record Movement and a Circle Movement in the 2000s (the circle poetry magazine "Jindalle" and "Garion" by Osaka Korean poet group were issued as a reprint version). This was the epoch-making development that elucidated the cultural activities of Zainichi Koreans of the 1950s.

With this new availability of data, in this paper, I am able to present the overall image of the cultural movement of Zainichi Koreans in the 1950s, as opposed to research focusing on specific magazines like the previous research. In the 1950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Zainichi Koreans ranged from Choryŏn to Minjŏn and later to Chongryŏn. The character of the magazine changed somewhat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s and these changes can be observed by the following periodicals. The first is a magazine that inherits the genealogy of "Minjuchosŏn", the second is "Jindalle" and its affiliate magazines, and the third is a journal related to the Zainichi Chosŏn Bungaku-kai. Analysis of these three trends shows not on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agazines published by Zainichi Koreans but als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magazines and the aspect of the solidarity and exchange with the post-war cultural movement of Japanese society. It also highlights the struggle of Zainichi Koreans who fought against the GHQ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threatens their right to live as an ethnic minority, further demonstrating that ideological war is on the rise in the homeland.